‘돈먹는 하마’ 자원공기업 ‘뼈깎는 구조조정’ 나선다

민관합동 점검위원회 구성 예정

석유·광물공사, 특단 대책 시급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 추진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원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만간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을 열어 2018년 7월 발표된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혁신TF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아래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고, 작년 3월에는 광물공사에 대해 별도로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가스공사의 경우 일부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012년 계약한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내 원유 광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재무구조가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물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8년 당기순이익이 5267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TF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내실화, 민간의 역량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aT 월동채소류 소비활성화홍보

“우리 농산물로 알뜰하게 장 보세요~”

aT, 월동채소류 소비 활성화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월동채소류(배추, 무, 대파) 소비활성화홍보를 이달 SNS, 방송(라디오), KAMI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월보에 따르면,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757ha로 조사됐지만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생산단수가 늘면서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20.8% 증가한 34만 7000톤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이례적인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aT와 농협 등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배추 7만1000톤을 시장격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동배추 소매가격(월평균)은 2330원/포기(3월 5일, 상품 기준)으로 평년 동월 대비 1060원/포기↓(31.4%↓), 전년 동월 대비 1958원/포기↓(45.7%↓) 저렴해 소비자가 알뜰하게 구매하기 좋은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권형 aT 수급관리처장은 “월동채소류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평년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해양심층수 산업, 4000억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를 4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 산업의 정책 방향이 될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의 이행평가 결과와 기후변화·웰니스(Wellness) 문화 확산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여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창출과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동해안 인근 시·도 및 물 관련된 지자체까지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작년 산재보험 최우수 의료기관 12곳 선정

근로복지공단

평가 개선해 서비스 변화시킬 것

근로복지공단의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산재보험 소견서의 작성이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경과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치료과정 및 결과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 왔다.

평가대상 상위 5%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부진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후 재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귀농자 절반, 고향으로 돌아갔다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귀농자 가운데 절반은 도시생활을 하다가 연고지인 농촌으로 ‘유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농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농가 평균을 웃도는 가구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귀농·귀촌 2507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은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귀농 가운데 53%, 귀촌 가운데 37.4%가 이 같은 ‘유턴’ 성향을 보였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을 거쳐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J턴’은 귀농의 19.2%, 귀촌의 18.5%에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들은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 등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를 댔다.

귀농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라는 응답률도 17.9%를 차지했다. 이 외에 ‘도시 생활에 회의’(14.4%), ‘가족 등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10.4%), ‘본인·가족의 건강’(10.4%), ‘실직이나 사업 실패’(5.6%) 등의 대답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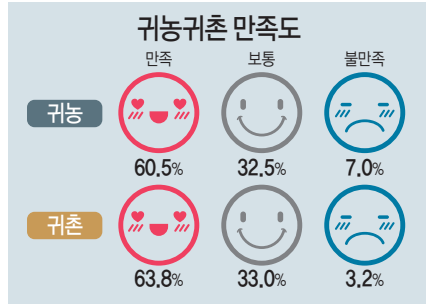
귀촌의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20.4%), ‘가족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16.4%), ‘정서적인 여유’(13.8%), ‘도시 생활에 회의’(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한 10가구 가운데 6가구꼴로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3가구는 보통, 1가구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귀농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30.0%로 가장 많았다. 귀촌의 경우 ‘영농 기술·경험 부족’이 53.0%로 수위를 기록했다.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7.5개월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귀촌 가구의 19.7%는 귀촌 이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했고, 귀촌 다음 해인 2년 차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가 78.3%로 가장 많았다.



귀농 가구의 귀농 전 평균 소득은 4232만원이었고, 귀농 첫해에는 2319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귀농 가구의 평균 소득은 5년 차에는 3898만원까지 올라 농가 평균 소득 3824만원을 넘어섰다.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 가구 196만원, 귀촌 가구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들은 확충돼야 할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취약계층 일자리, 임신·출산·양육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도 들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농촌 정착 시 소득 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